

이름 윤상현

1. 파견대학 관련

파견대학	일본 Ehime University
파견기간	예) 2011.9.28 ~ 2012.8.5
귀국여부	네 (2012.08.19)
수강과목(2011 Fall) 및 과목별 수강평가	<p>본인이 수강한 과목명,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p> <p>日本事情A2 (Japanese Culture and society A2)</p> <p>-일본의 사회 문화는 물론 마쓰야마의 명소 관광에도 좋으며 외국인 친구들 사귀기에 매우 좋은 수업이었다.</p> <p>日本語B2 (Japanese B2)</p> <p>-일본어의 기초를 닦을 수 있었다.</p> <p>日本語口頭表現C2 (Japanese C2 : Oral)</p> <p>-자유롭게 외국인 친구들과 일본 원어민들과 토론 및 의견교환을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p> <p>日本語漢字語彙B1 (Japanese Kanji B2 : Vocabulary)</p> <p>-일본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자 어휘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p> <p>手話コミュニケーション 2 (Sign Communication 2)</p> <p>-일본의 수화와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다.</p> <p>特別支援教育概論 (Introduction to Special Support Education)</p> <p>-일본의 특수교육에 대하여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었다.</p>
수강과목(2012 Spring) 및 과목별 수강평가	<p>본인이 수강한 과목명, 각 과목에 대한 평가를 적어주세요</p> <p>コース初歩学習科目.(Course-specific Introductory Class)</p> <p>-일본의 특수교육 현장의 분위기와 실제에 대한 체험이 가능했다.</p> <p>聴覚障害児指導法 (Education for Children with Hard of Hearing)</p> <p>-일본의 청각장애아 교육의 역사와 더불어 현장에서의 청각장애아 교육 전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졌다. 현장에서의 적용이 가능한 교육방법에 대해 고민 할 수 있는 좋은 수업이었다.</p> <p>日本語口頭表現D1 (Japanese D1 : Oral)</p> <p>-외국인 친구들과 일본 원어민들과 함께 즐겁게 토론하면서 일본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p> <p>日本語漢字語彙B1 (Japanese Kanji B2 : Vocabulary)</p> <p>-일본 한자 어휘를 중심으로 일본원어민의 개인지도가 이뤄졌다.</p> <p>手話コミュニケーション 1 (Sign Communication 1)</p> <p>-일본 청각교육의 역사 및 수화 커뮤니케이션의 흐름과 기초를 배울 수 있었다.</p> <p>言語コミュニケーション発達論 (Development of Language and Communication))</p>

	언어 발달에 있어 이론과 실제를 접목시켜 교육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시간 있었다.
Tuition 외 지출한 비용	University dormitory Fee, 1달에 18,000엔

2. 생활전반 관련

숙소	학교기숙사:에히매 대학 미유키 학생 기숙사(愛媛大学御幸学生宿舎)
숙소비용	월세 18000엔
숙소평가	좁은거 이외엔 혼자 살기에 쾌적하고 깨끗한 기숙사였습니다.
식사	학교식당,기숙사식당 개별이용 하거나 직접 요리 해먹었습니다.
식사비용	학생 식당 500엔 정도
식사평가	양질의 식사에 만족하며 맛있게 먹었습니다.
보험	학교 생협 보험(生協保険)을 들었습니다.(2000엔 보증금)
한달 생활비(대략)	3만엔

3. 교환학생 파견 전 한국에서 미리 알고 갔으면 좋았을 정보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1. 한류 열풍으로 한국어 과외 수업의 수요가 있습니다. 한국어 관련 자격증을 미리 따고 일본 유학에 임한다면 한국어 교수 아르바이트에 있어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유학생회에 있어서 짐 정리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미리 짐과 선물들은 배편으로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3. 현지의 가족들과 연계 해주는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현지 가족들과 교류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4. 학교 내에서 유학생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공지를 주시하면 좋은 일자리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5. 현지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현지 한국인 유학생 모임의 관계도 소홀히 않으면서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100% 현지 친구들과의 관계야 물론 어학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는 있겠지만 같은 입장의 유학생들과의 서로 돕는 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결과보고서 (자유형식) : 글자크기 10, A4 1장 이상

-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교원 임용 고시의 부담으로 교육학과에서는 휴학과 유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드문 편입니다. 하지만 그런 부담을 뒤로 하고 다녀온 일본에서의 근 10개월간은 저에게 있어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과 기억들입니다. 교환 학생 지원 결정에 앞서 여러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다 나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선택한 영어영문학 복수 전공은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만은 않았고 결국 군 휴학을 제외하고는 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왔던 나날들 이었습니다.

학생의 기회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외국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경험해 볼 수 있는 교환학생 제도는 신입생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단 교원 임용고시를 목표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저였기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일본 에히메 대학에서 교환학생을 마치고 돌아온 친구와의 경험담을 듣고 선진 특수교육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의 특수교육과 먼나라 이웃나라의 일본의 문화를 체험 해 보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교 재학시절 2외국어로 일본어를 이수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한 면도 없진 않았지만 일본어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속설처럼 미리 일본어 공부를 심도있게 준비하지 못한 저로서는 걱정이 쌓였지만 출국의 날은 다가 왔습니다.

일본에 입국하자마자 공항 출국장에서 반겨주시던 교수님의 그 환한 웃는 얼굴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일본 유학 생활의 처음 과 끝은 담임 교수님의 섬세한 지원과 배려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일본 생활 전반에 있어 자상한 안내를 해주심은 물론 유학생들을 지원해주는 튜터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직 어색한 시기에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신 것은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문화 체험에 있어도 여러가지 일본의 축제에 대해 안내 해주셨고 봉춤제와 축제 참여에 있어 다방면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교수님과의 추억으로는 일본에 단 하나 남은 자연 그대로라는 시만토 강 카누 여행이었습니다. 비가와 물이 많이 뿌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롱하게 반짝이는 물결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어 더위 정도는 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학생들과의 추억 또한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2학기 (일본에서는 후기)부터의 교환 유학이었기 때문에 한학기 밖에 볼 수 없었던 08학번 4학년 아이들이 졸업 논문으로 힘들어 하면서도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에 있어 진지한 모습에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었지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 이제까지 진지하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해 반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4학년 친구들을 졸업식을 마지막으로 보내고 4학년에 진급하게 됐던 09학번 친구들과는 특별히 추억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환 학생 마지막 학기부터는 담임교수님께서 관심있는 분야의 재미(ゼミ)에 들어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해주셨기에 타카하시 교수님의 재미(ゼミ)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재미(ゼミ)란 4학년 에 진급하는 학생들이 졸업 논문을 위한 지도교수님의 연구실의 세미나 정도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공 와우(달팽이관)에 관심이 있던 저는 인공 와우 연구에 저명한 타카하시 교수님의 연구실의 일원으로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학생들이 지도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고 타카하시 교수님의 소개로 인공 와우 수술 참관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같은 재미의 학생들과는 연구 주제에 대한 토론에 더불어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물심양면으로 유학생들을 지원해 준 친구들에 너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위와 같이 근 10개월 간의 유학생생활을 정리해보면 우선 일본어 공부가 미숙한 상태였기 때문에 초기 유학 생활을 비롯하여 첫 학기에는 전공 수강 신청에 있어서 큰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배려와 튜터 학생들의 도움으로 학과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교환 유학전에 보다 열심히 어학 공부에 힘을 기울였다면 보다 많은 전공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었다는 것에 아쉬움이 깊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학교 수업은 1시간 반짜리 수업이 보통입니다. 그 길다면 긴 시간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지루해하지 않게 재미있게 학습내용을 전달 할 수 있을지 고민하셨던 교수님들은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 밑에서 공부할 수 있었고 언제나 따뜻하게 저를 지원해주었던 일본 친구들이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교환 유학을 마치고 이제 학교로 돌아가 다시 학기를 맞이 합니다. 동기들은 태반 졸업을 한 상태이며 수강하는 과목도 전부 복수전공 과목이기에 걱정이 앞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일본에서의 시간들과 경험들을 소중히 여기고 제가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뚜렷한 목표를 정하여 한곳으로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일본에서 응원해주고 있는 친구들과 교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제 안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해주었고 보다 넓은 세상과의 매개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철저히 준비하여 도전해 보라고 권유하겠습니다.